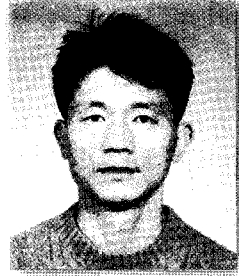


선진지(국내) 견학을 다녀와서



이근형
(광주전남서부지회 사무국장)

본 지회는 조경수 산업발전 및 회원 간의 친목·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 추천농장 몇 군데를 선정하여 지난 6월18일(토)에 다녀왔다. 참여인원은 20명으로 아침 9시에 출발하여 고창군 성내면에 도착하기까지 버스 안에서 약 50분간 구자태 지회장님 및 이한승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참여회원(사) 간의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 견학할 농장은 고창군에 소재한 금파농원(김훈성), 송광농원(유승환), 형제농원(김재규) 등의 세 개사 농장으로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 두 번의 사전답사를 하였으며, 수목의 식재 전 기반조성에서 판매까지 현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선물전달 (금파농원에서)



이팝나무 파종방법 설명 (금파농원에서)



농장도착 및 설명 (금파농원에서)



단체사진 촬영 (금파농원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농장은 고창군 성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금파농원을 들러 바쁜 일정을 미루고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신 김훈성 사장님께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낙엽수(이팝나무, 느티나무, 산사나무, 등등)의 식재 전 기반정리, 식재간격, 관리 등에 관한 방법과 소나무의 재배, 관리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소나무는 10여 년 전에 조금씩 정리하고 낙엽수 재배에 투자하게 된 것이 잘한 것 같다고 하였다.



느티나무 재배방법 (송광농원에서)



메타세콰이아 재배방법 (송광농원에서)

두 번째 농장은 조경수 3월~4월호 '회원사 탐방'에서 소개된 송광조경의 유승환 사장님의 농장을 견학하였다. 고창군 아산면과 성송면에 위치한 농장은 낙엽수의 식재장소, 묘목선정, 식재기반조성, 식재간격, 비배관리, 판매전략 등에 관한 방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본인이 앞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 라는 말이 오랜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다.



농장을 돌아보며 (형제농원에서)



소나무 관리방법에 대해서 (형제농원에서)



소나무 감상 (형제농원에서)



감사의 선물전달 (형제농원에서)

다음으로, 돌아본 농장은 고창군 성송면에 위치한 형제농원을 방문하였다. 오직 소나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외길을 걸어 오시고, 또한 소나무로 미래를 계획하시는 심재규 사장님의 첫 인사 말씀은 '나무를 키우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셨다. 곳곳에 서 있는 노송들은 본인이 걸어온 오랜 세월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바쁜 일정을 미루고 우리를 맞이해준 심재규 사장님께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미리 예약한 선운사 입구의 유신식당으로 이동하여 늦은 점심을 먹었다. 지역 특산물인 풍천장어와 북분자주를 맛있게 먹고, 마지막으로 돌아본 곳은 금파농장 김훈성 사장님 분가 주변에 가꾸어 놓은 농장을 돌아보았다. 잘 다듬어 놓은 수많은 소나무와 분재를 보면서 '결코 눈앞의 돈보다는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분재 감상 (금파농원에서)



소나무 유인 (금파농원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오늘 견학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화생지의 중요성을 보았듯이 우리도 조경인으로의 희생자가 되자"라는 지회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어임삼 고문님의 "오늘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잘 응용하여 더욱 품질 좋은 조경수 생산 및 활용에 힘쓰자" 라는 말씀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어느새 광주에 도착하여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남긴 채 오늘 일과를 마쳤다. 🌲